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 교회

최근에 들려 오는 소식에 의하면 70 년의 미국 안보조약 갱신을 둘러싸고 미국 교회 대표와 일본 교회 대표가 일본 고텐바에서 회담을 가진다고 한다. 이 모임은 작년에 있었던 미국 교회 대표와 일본 교회 대표간의 회합을 연장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특히 월남 전쟁의 종식을 앞두고, 미국의 반전 데모가 가일층 격화되어지고 있는 실정을 미루어 본다면 이러한 모임은 대단히 의의가 있는 일로 해석된다. 더우기 아시아에 있어서 강한 발언권을 획득한 일본의 입장을 교회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미국 교회가 이 점을 중시하고 일본 교회와의 협의를 두 차례나 가진 사실은 시기에 알맞는 조처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아시아의 평화 문제를 다루어야 할 역사적인 필연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특히 한국 교회는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북괴의 침략을 직접 경험했고, 그 침략을 당한 경험이 어떠한 전체주의 침략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얻은 경험이었다. 지금도 이러한 위협 속에서 불안한 여건하에 국가 건설을 하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한낱 이념으로나 정당으로 생각하고 민주주의 체제하에 다원적인 원칙에

따라서 너그럽게 다루고 있으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는 우리의 생존의 전체를 위협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느냐 공산주의가 사느냐는 막다른 기로에 서서 공산주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반공 정신은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 태세인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태도가 가끔 외국 지도자들(특히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해서)에게는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반공 태세로 인식되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미국 교회는 한국을 단순한 반공 국가로 보고 저들의 주의를 중공이나 일본에만 쏟는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교회는 반공을 강경하게 밀고 나갈수 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켜 주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이런 국제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 대표는 반발적인 발언이나 퇴장을 일삼아서, 결국 국제적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뚝뚝하게 천명하여 과연 우리 교회의 입장이 단지 고루한 반공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공 정신 속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해방과 자각에 의한 내부적인 변혁이 북한 안에서 생겨지기를 바라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 아시아의 평화 문제는 그 문제성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임을 짐작하여 이 문제를 미국 교회와 일본 교회만이 다루지 말고 한국을 위시한 북동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가 합석하여서 토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 안보 문제는 결코 일본에

만 국한된 책임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의 공동 과제임을 거론하여 한국의 책임 수행이 결코 한국의 안보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 평화를 유지하는데 막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국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니시어티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이고 또 나아가서는 평화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의 문제는 하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을 받은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십자가인 것이다.